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A DARKNESS OF DRAGONS

가제 : 피리 부는 소년

저자 : S. A. Patrick

출판사: Usborne Publishing Ltd

발행일: 2018년 9월 6일

분량 : 416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워터스톤스 선정 ‘이달의 도서’

* “완벽한 판타지 모험 소설의 요소를 모두 갖춘 이야기” – 『The Legend of Podkin One-Ear』의 저자 키에란 라우드

* “엄청난 상상력, 흥미로운 등장인물들, 매력적인 스토리가 어린 독자들은 물론 어른들의 가슴과 마음도 사로 잡는 소설” – 「랭커셔 포스트」

중세 시대부터 독일의 작은 도시 하멜른에서 전해지는 유명한 전설이 있다. 그림형제의 동화, 로버트 브라우닝의 시와 그림책을 통해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몇 년 전 우리나라에서도 영화 <손님>으로 각색된 이 전설은 바로 피리 부는 사나이에 관한 섬뜩한 이야기다. 20여 년 전, 우연히 이 전설을 접하고 내내 마음에 남아 있었다는 저자는 하멜른에 피리 부는 사나이가 나타나 마법 같은 연주로 쥐를 없애고 뒤이어 어린 아이들을 유인해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데려가 버린 사건이 벌어진 후 10년 뒤를 배경으로 한 색다른 판타지 소설을 완성했다. 가느다란 피리에서 흘러나오는 곡조로 사람이든, 동물이든, 곡식이든 멜로디가 달는 모든 대상에게 이상하고 강력한 변화를 일으키는 피리 연주자들이 사람들의 일상과 함께 하는 시대에 누구보다 뛰어난 연주자가 되고 싶은 패치와 저주에 걸려 쥐가 되어버린 소녀 렌, 그리고 용과 그리핀이 합쳐진 희한한 동물 바버가 한 팀으로 푹푹 뭉쳐 사악한 마법사와 맞서 싸우는 과정이 펼쳐진다. 친숙한 이야기에 더 풍성한 상상력과 개성 넘치는 매력적인 인물들이 더해진 이야기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꼭 빠져서 읽을 수 있을 만큼 흡입력이 대단하다.

패치의 쥐 소탕 작전은 다소 얼떨결에 시작됐다. 거대한 폭포가 있는 산간 오지 마을, 패터폴은 겨울마다 폭설로 바깥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채로 봄을 기다려야 하는 곳이었다. 끽끽 언길에 얼음과 눈이 산더미처럼 쌓인 채로 굳어서 밖으로 나갈 수도, 누군가 들어올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 날, 동네 꼬마들이 패터폴의 큰 숲 근처에서 고향을 치며 뛰쳐나왔다. ‘얼음 괴물’이 나타났다는 아이들의 고향 소리에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고, 정말로 숲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음에 뒤덮인 존재가 어기적어기적 걸어 나왔다. 그런데 겨우 용기를 낸 마을 할머니 한 사람이 이 정체 모를 얼음 덩어리를 향해 삼을 휘두르자, 탁 하고 깨진 얼음 사이로 사람의 웃이 드러났다. 너도나도 달려들어 얼른 얼음을 깨고 나니 이제 겨우 열살 남짓한 소년이 모습을 드러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소년의 웃 주머니에선 패터폴 사람들이 가장 고대하던 물건이 나왔다. 구멍이 여러 개 뚫린, 작은 피리였다. 300년 넘는 마을 역사상 처음으로 수천 마리 쥐떼가 나타나 일년 동안 힘들여 농사 지은 식량을 모조리 갹아먹어버리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자 마을 사람들은 피리 연주자를 보내달라고 관청에 요청했는데, 마침내 그가 온 것이다!

10년 전, 하멜른에서 피리 연주자가 이상한 연주로 어린 아이들을 유인한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피리 연주자들은 발길 닿는 대로 유랑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당한 비용을 받고 큰 도움을 주곤 했었다. 곡식이 잘 자라지 않을 때, 아이가 아플 때, 동물들이 병이 났을 때 등 갖가지 문제들이 매혹적인 멜로디와 함께 말끔히 해결됐었다. 하지만 하멜른 사건 이후에는 정해진 교육기관에서 피리 연주를 배우고 자격증을 취득한 연주자만 그런 일을 할 수 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관청에 요청하면 연주자가 배정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틀이나 의식 없이 쓰러졌다가 깨어난 패치는 자신을 너무나 반기는 마을 사람들의 애타는 눈길에 얼른 자리를 털고 일어난다. 패터폴에 오기까지 며칠이나 눈 속을 걸었는지, 추위와 배고픔에 얼마나 떨어졌는지 기억까지 희미했지만 닳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 쥐떼가 곡식을 다 먹어 치운 것으로 모자라 사람까지 잡아 먹을 것 같다며 벌벌 떠는 사람들을 위해 패치는 피리를 불기 시작한다. 하지만 바퀴벌레, 쥐 등 해충을 없애는 노래로 학교에서 배운 곡들은 패터폴의 쥐에게 전혀 먹히지 않았다. 당황한 패치의 머릿속에 마지막 남은 방법이 떠올랐다. 법으로 엄격히 금지된 곡, 하멜른을 마지막으로 한 번도 연주된 적 없는 ‘춤곡’이었다. 이상한 총동으로 춤곡을 연주하자마자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통통한 쥐떼가 모여들기 시작한 것이다. 거대한 쥐떼를 폭포 근처로 유인한 패치는 그제야 저 뒤에서 마을 사람들도 춤을 추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피리를 부러뜨리고 나서야 폭포로 떨어질 뻔한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한 패치는 그대로 끌려가 감옥에 갇힌다. 피리 연주자들의 평화로운 역사를 망쳐놓은 자, 하멜른의 사악한 연주자와 똑같은 죄목이 패치에게도 씌워지고 말았다. 추위에 떨다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치명적인 죄를 저지른 패치는 감옥에서 무서운 소식을 전해 듣는다. 10년 전 붙잡힌 하멜른의 피리 연주자가 다시 세상에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춤곡의 위력을 직접 본 패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직접 그를 막기로 결심한다. 한 때는 귀족이었지만 저주에 걸려 쥐가 되어버린 소녀 렌과 무서운 외모와 달리 인정 많고 착한 날 아다니는 용 바버가 패치의 든든한 지원군이 된 가운데, 감옥을 탈출한 패치는 무서운 싸움을 준비한다. 사고뭉치 견습생이 엄청난 능력을 가진 연주자를 막을 수 있을까? 기발한 상상력과 신비한 마법, 유명한 전설이 잘 어우러진 판타지 소설이다.

<저자 소개>

S.A. 패트릭(S.A. Patrick)은 어릴 때부터 꿈꾸던 비디오게임 개발과 글 쓰는 일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Reviver』, 『Lost Souls』, 『The Returned』가 있다. 위 책이 처음 쓴 YA 소설이다.

제목 : INTERNMENT
가제 : 강제수용소
저자 : Samira Ahmed
출판사: Little, Brown Books for Young Readers
발행일: 2019년 3월 5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네덜란드 판권 계약**

- * “모두가 우습게 여길 때, 청소년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 존엄과 투지를 그린 명작이다”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Exit, Pursued by a Bear』의 저자 E.K. 존스턴
- * “현재의 정치적 상황을 통렬하게 고발하는 소설. 작가는 증오와 무지로 이루어진 모든 벽과 맞서 싸우는 용감한 어린 전사를 우리에게 선물했다” – 내셔널 북어워드 결승 진출자, 『American Street』의 저자 아이비 주보이

피부색과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으로서의 ‘가치’ 혹은 ‘능력’에 차이가 있다고 여기는 비논리적인 생각은 역사의 어두운 한 순간으로 끝났으면 좋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상 곳곳에서 이 같은 차별이 무수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가 새롭게 완성한 이 소설에서는 인종 차별이 극에 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상세히 그린다. 단지 무슬림이라는 이유로 수십 년을 같은 땅에서 살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같은 시민을 범죄자처럼 잡아들여 수용소에 가둬버리고 추방하는 사회에서 대다수가 ‘어쩔 수 없다’며 좌절할 때 끝까지 이 부당하고 비인간적인 상황과 맞서 싸우는 소녀 카일라의 이야기는 그저 소설 속 이야기라고만 생각하기에는 소름 끼칠 정도로 너무나 현실적이다. 미국에서는 진주만 공격 이후 반일 감정이 극에 달하자 1942년에 루즈벨트 대통령의 서명으로 최종 발효된 행정명령에 따라 무려 13만 명에 가까운 일본계 미국인을 강제수용소로 이주시킨 역사가 있다. 이 소설은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까지 모든 것을 잃고 수용소로 끌려갔던 이 놀라운 역사가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무슬림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무분별한 차별과 위협이 고조될 경우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태를 카일라와 가족들을 통해 선명하게 보여준다.

한밤중에 총을 든 군인들이 여러 명 집에 들이닥쳐서 부모님과 자신을 쓰러뜨리고 죄인처럼 질질 끌고 나간 그 순간이 오기 전에 이미 카일라는 언젠가 이런 사태가 벌어질 것을 예감했다. 하지만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훨씬 공격적이고 잔인한 형태로 그 날이 오고야 말았다. 2년 6개월 전 새롭게 당선된 대통령은 재임 1년 만에 무슬림 금지법을 만들었다. 그리고 9개월 전, ‘금서’로 지정된 무슬림 관련 서적들이 먼 옛날 마녀를 화형 시키듯 활활 불에 타 재가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일어났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 6개월 전에 결국 최종 법률로 승인된 <제외법>이었다. 이 법률에 힘입어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가 지정한 시민을 강제로 특정 장소

에 이동시킬 수 있다는 사법부의 판결 사례까지 나왔다. 그러자 변화는 뉴스나 신문에서 떠드는 것에서 벗어나 라일라의 일상 생활까지 번지기 시작했다. 대학에서 10년 넘게 시와 글쓰기를 가르쳐온 아버지는 예고 없이, 아무런 사유도 듣지 못하고 교수직을 잃었다. 공공기관에 무슬림 취업을 금지한다는 정책이 시행된 이후 대학이 가장 먼저 그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2차 대전 이후 사라진 '전쟁 장관'이 새로 임명되고, 이슬람 인들은 모두 미국의 평화를 악의적으로 망가뜨리려 하는 존재라는 인식이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다. 대다수가 과연 그런 말을 누가 믿겠냐며 코 웃음 치던 시절도 분명 있었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얼마 전까지 함께 놀던 오랜 친구와 이웃, 힘든 일을 함께하며 서로 믿고 의지했던 동료들이 이슬람 인이라는 이유로 등을 돌리고 조용히 그 대열에 합류했다. 국가 권력의 남용을 비난하고 시민의 자유를 외치는 크고 작은 시위는 이어졌지만 경찰의 진압 방식은 날로 거세졌다. 그리고 언론들은 정당한 시위를 '폭동'으로 치부하며 무력을 행사하는 공권력의 현장에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았다. 고등학교 졸업반인 라일라는 이 모든 변화를 주시하고, 기억에 꼭꼭 눌러 담으며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임을 예감한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갑작스럽게 총구에 몸이 눌려가며 강도나 살인자 취급을 당하며 체포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라일라의 가족을 체포하러 온 군인들은 '강제 이동 명령'이 내려졌다고 통보했다. 아버지가 쓴 '저항'이라는 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몇 년 전에 발표되어 평단의 호평을 받고 언론에도 보도되고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한 그 시에 사회적 반역을 부추기고 선동하는 사상이 담겨 있다는 억지스러운 주장이 오밤중에 총을 들고 민간인을 잡아가는 이유라니? 라일라와 가족들은 그대로 소지품이라곤 입고 있던 옷이 전부인 채 강제수용소로 끌려갔다.

라일라의 부모님은 모든 희망을 버리고 라일라에게도 잠자코 있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하지만 라일라는 그럴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비슷한 시기에 함께 끌려온 이슬람 인 친구들과 금세 가까워진 라일라는 법률이라는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직접 바로잡기로 결심한다.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를 되찾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한 수용소의 아이들은 엄청난 권력을 부여 받고 황제처럼 군림하는 수용소장과 <제외 법>을 등에 업고 맹활약하는 헌병들과 맞설 계획을 수립한다. 수용소 밖에서 힘이 되어주는 남자친구 데이빗과 광기 어린 정권에 반대하는 시민 운동가들의 위험을 무릅쓴 지원에 힘입어 라일라는 <제외 법>의 법적 타당성을 날카롭게 제기하며 나치 시대 독일을 복사한 것처럼 변해버린 사회를 향해 당당히 목소리를 낸다. 최근 들어 서방 사회의 이슈가 된 이슬람 인을 향한 이유 없는 혐오와 다른 인종에 대한 편견, 권력 앞에서 굴복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일침을 놓고 십대들의 강력한 잠재력을 보여주는 소설이다.

<저자 소개>

사미라 아흐메드(Samira Ahmed)는 인도에서 태어나 일리노이에서 자랐다. 시카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영어교사로 7년간 일했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Love, Hate & Other Filters』를 비롯해 소설과 논픽션, 시 등 다양한 작품을 발표했다.